
 금융위원회	보 도 참 고 자 료				 금융감독원
보도		배포 후 즉시		배포	2017.12.14.(목)
책 임 자	금융위 전자금융과장 주 홍 민(02-2100-2970)		담 당 자	김 민 하 사무관 (02-2100-2972)	
	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실장 임 채 울(02-3145-7850)			김 용 태 전자금융팀장 (02-3145-7425)	

제 목 : 한국경제 12.15일자 “가상계좌도 모르면서 가상화폐 잡겠다는 정부” 제하 기사 관련

< 기사 내용 >

- ☐ 한국경제는 12.15일자 “가상계좌도 모르면서 가상화폐 잡겠다는 정부”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은행 관계자들은 현재의 가상계좌 운영 체제에선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”라고 보도

< 보도 참고 내용 >

- ☐ 지난 9월, 「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」에서 발표한 “가상통화 대응방향”에 따라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발급한 가상계좌를 통해 이용자 본인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,
 - 기존의 가상계좌로는 이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, 앞으로 은행이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으며 조만간 실시할 예정임
- ☐ 한편, 어제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,
 -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율 마련 방안은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며, 종전에 발표한 바와 같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